

전남 8위 놓고 막판 경합...광주 14위 확정

전남체고 남·여육상

1,600m 계주서 금

광주 동신고 정구 금

올 시즌 5관왕 등극

제87회 전국체전 폐막을 하루 앞둔 22일 광주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순위 14위를 확정지었고, 전남은 대구, 대전, 인천과 8~11위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22일 현재 광주는 금 36, 은 33, 동43개, 전남은 금 45, 은 54, 동 63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목표인 3만800점 중 1만7천798점을 획득해 목표인 13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단계 올라 선 14위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해 9위를 기록했던 전남은 한 자릿수 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경쟁시도인 대구, 대전, 인천과 500점 이내 오차 범위내에서 마지막 날 까지 경쟁을 펼치게 됐다.

▲광주=유정선(광주선발)이 22일 영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우수 일반 산수 60kg에서 충남 김대효를 2-0으로 제압하고 2연패 위업을 이루며 광주의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탤다.

태권도에서는 이희주(광주체고 3)가 여고 헤비급에서 전북 김민지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박관수(한국체대)는 복싱 대학부 라이트웰터급에서, 오준석(남구청)은 레슬링 남자일반 자유형 60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광주의 막판 목표달성에 힘을 보탤다.

단체전에서 송원여상은 여고 배구 결승에서 경기 한일전산여고와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년만에 우승 감격을 맛봤고, 동신고는 정구 남고부 단체전에서 우승해 올 시즌 전국대회 5관왕에 등극했다.

광주체고는 체조 여고부 단체전에서 금빛연기를 펼쳤다. 광주는 23일 야구와 레슬링, 체조, 사이클, 수영 등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전남체고가 전남 창도 이래 처음으로 육상 남·여고 1,600m계주에서 각각 3



22일 경북 문경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대학부 자유형 55kg급 경기에서 광주 조선대 최윤호(청)가 부산 경성대 김상래(홍)의 다리를 잡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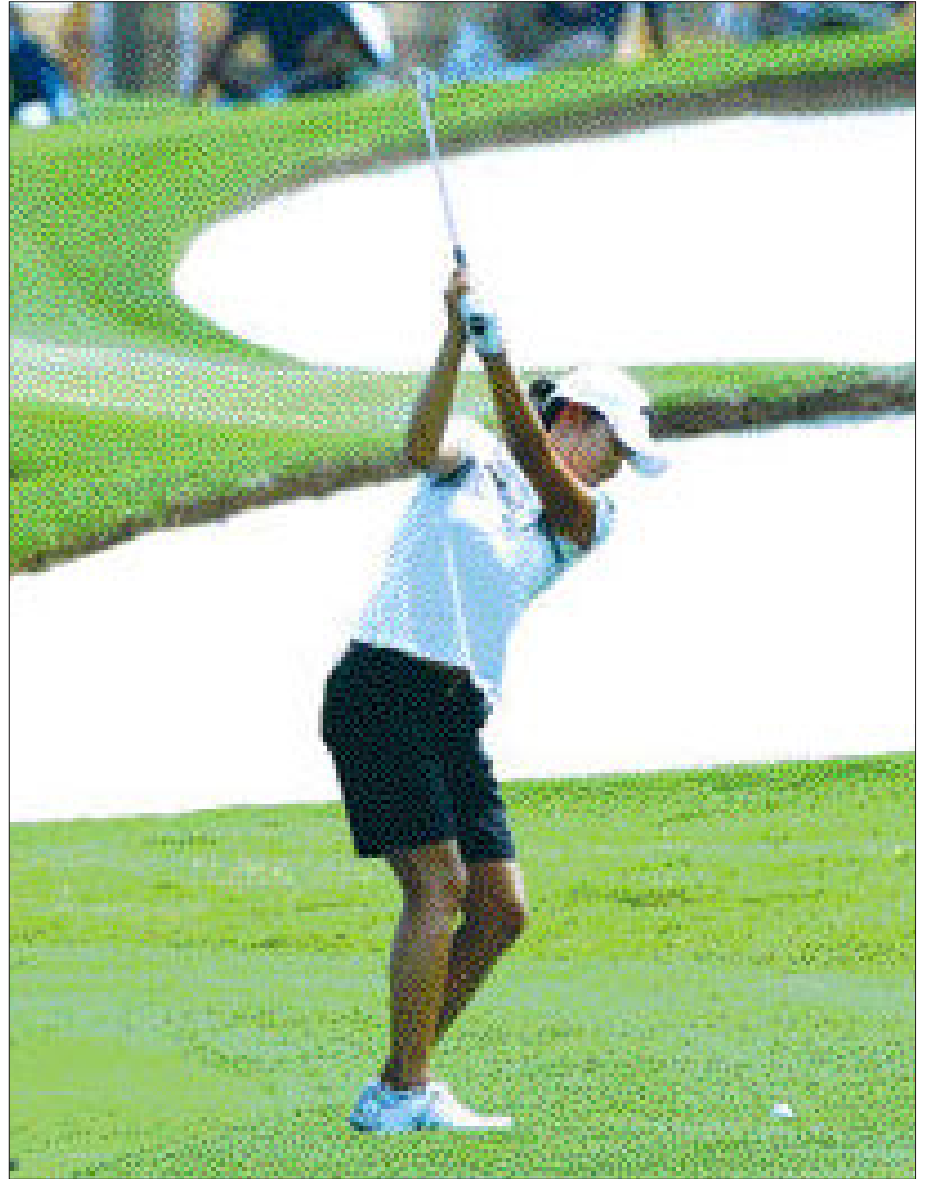
분 15초66, 3분47초56으로 동반 우승하며 소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나아름(전남미용고)은 사이클 여고 60~80km개인도로에서 금빛질주를 펼치며 4관왕의 기업을 토하며 최고 효자역할을 했다. 허준범(경희대)과 전경민(함평군청)은

각각 태권도 남대부 헤비급과 레슬링 남자일반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복욱(광양시청)은 볼링 남자일반 마스터즈에서 2천647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따내며 마지막 순위 다툼에 소중한 점수를 더했다.

전남은 폐막일인 23일 백제고와 무안고 핸드볼, 광양제철고 축구, 하키 여고와 일반 등 단체종목과 레슬링 자유형 체급별 경기, 체조 종목별 결승 결과에 따라 8~11위 순위를 확정짓게 된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희원 가볍게 시즌 2승 태극남자들 올 V10 합작

박희정 3위·김초롱 6위
혼다 LPGA2006 최종

한희원(28·윌라코리아·사진)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을 올리며 태극남자군에 10번째 우승 컵을 선사했다.

한희원은 22일 태국 촌부리의 아마타 스파링골프장(파72·6천392여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혼다LPGA2006 최종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쳐 2위 타이애나 델라시오(미국·9언더파 207타)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초대 챔피언이 됐다.

한희원은 올해 코닝클래식 우승을 포함해 두번째 정상에 올랐고 LPGA 투어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10차례나 우승하는 코리아 파워를 뽐냈다.

한국 선수들은 2002년 9승을 합작한 이후 가장 많은 10개의 우승컵을 거머쥐

었다. 카스트랄리는 12번을까지 버디는 1개도 잡지 못하고 보기 5개를 범해 일찌감치 우승권에 멀어졌고, 카린 코크(스웨덴)가 버디 4개를 잡아내며 추격해 왔지만 한희원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코크는 7언더파로 공동 6위에 만족해야 했다.

여유있는 플레이를 펼친 한희원은 후반들어 버디 3개를 보태고 보기는 2개를 범했지만 우승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박희정(25·CJ)이 8언더파 208타로 3위, 재미교포 김초롱(22)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1오버파로 다소 부진했지만 합계 7언더파 209타로 공동 6위, 김영(25·신세계)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 사이클

고향의 명예 드높인 광주·전남 2팀

■ 광주송원여상 배구

나아름 4관왕·유진아 3관왕...종합 2위

금 9·은 6·동 3개 획득

지난해 5위 부진 씻어

전남 사이클이 제87회 전국체전에서 폐막을 하루 앞두고 남고·남자일반 개인도로 경기를 남겨놓은 22일 현재 금 9개, 은 6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에 복귀, '전국최강'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지난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9, 은 5, 동4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사이클 종합순위 1위를 달성했던 전남 사이클은 지난해 제 86회 전국체전에서 금 3, 은 3, 동 6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따내는 데 그치며 종합 5위로 미끄러움을 탔다.

지난 2001년부터 최근 4년동안 최소 3위



종합 2위를 차지한 뒤 나일주 전남사이클 연맹 회장(왼쪽에서 4번째)을 비롯, 양재환 전무, 노효성, 유진아, 김수현, 나아름, 주현욱, 김진희, 정대권 선수, 박경춘 강진균 감독, 정선희 전남미용고 코치(왼쪽부터)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권을 기록하며 최강 전남사이클 시대를 구가했던 전남사이클로서는 충격이었다.

양재환 전남사이클 전무이사를 비롯한 선수단에 비상이 걸렸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선수단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올 해부터 전남사이클 연맹의 수장으로

나선 나일주(59·주 화인코리아)회장도 선수단 지원에 큰 힘을 보탤다.

전남사이클의 '보물' 유진아(나주시청)는 스프린트와 500m독주, 단체스프린트에서 금빛질주를 펼치며 3관왕에 올라 상승무드를 주도했다. 남자고등부 정대권(금성고)도 스크래치에서 금을 더했다.

전국체전 15년만에 우승...올시즌 3관왕

한일전산여고에 3-2 승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

게임으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24-24에서 상대 서브실수를 틈타 25-24로 첫 세트를 따낸 송원여상은 2세트도 26-24로 승리, 세트스코어 2-0으로 우승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한일전산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3-4세트를 내리 따낸 한일전산여고의 상승무드에 주춤하던 송원여상은 5세트에서 심기일전 15-12로 승리,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송원여상은 올 시즌 2006춘계 전국남·여중·고배구연맹전과 제40회 대통령배

전국남·여중·고 배구연맹전 우승 등 3관왕에 등극하며 송원여상 시대를 활짝 열었다.

전주 근영여고, 경기 한일전산여고와 여고 배구를 3분할 하고 있는 송원여상은 고광삼(72·광주배구협회 회장)회장이 지난 2004년 겨울,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던 김철용(현 흥국생명 감독)감독을 영입하면서 최강 전력의 기틀을 다졌다.

여기에 고광삼 광주배구협회 회장, 이재화(56)전문의 아낌없는 지원과 학교와 학부모의 뒷바라지, 윤권영(전 한양대 감독)감독, 송성기 코치의 지도력이 더해져 송원여상은 전국최강의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재화 광주배구협회 전무는 "주전 대부분이 2학년으로 구성돼 있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며 대회 2연패를 자신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